

1위
ABC 공인 유류·빙방부수
3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www.sportsdonga.com



심우준

선구안 좋아진 심우준 이젠 유격수 타격 1위!

S존 타격 집중 타율 0.294...5월엔 0.364
수비·주루 강점에 방망이까지 업그레이드



유격수 타율 1위, 심우준(26·KT 위즈)이 강점이던 수비와 주루에 공격까지 장착했다. 개인적인 동경과 목표는 확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버리면서 성장세가 눈에 띈다.

17일까지 유격수 타율 1위는 심우준(0.294)이다. 디슨 마차도(롯데 자이언츠·0.283), 노진혁(NC 다이노스·0.267), 하주석(한화 이글스·0.258) 등보다 높다.

야구국가대표팀의 가장 큰 약점은 선발 마운드와 유격수로 꼽힌다. 2년 전까지만 해도 KBO리그에서 활약하던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양현종(텍사스 레인저스), 김하성(키움 히어로즈)이 줄줄이 메이저리그로 떠났기 때문이다. 오지환(LG 트윈스)의 존재가 든든한 가운데 젊은 선수들의 각축전이 유격수를 비롯한 내야 백업을 놓고 치열하다.

심우준은 5월 이후 타격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5월 12경기에서 타율 0.364로 펄펄 날고 있다. 특히 스트라이크존 바깥쪽 공 스윙 비율이 7%로 하락했다. 지난해까지 14% 안팎을 유지했으니 절반 수준이다. KT 데이터분석팀 관계자는 "나쁜 공에 손이 안 나가니 정타가 늘었다. 존에 형성되는 투구를 인플레이 타구로 만들어내고 있다. 빠른 발과 함께 많은 안타가 나는 시너지"라고 설명했다.

수비와 발에는 확실히 강점이 있다. 3루수와 2루수로 꾸준히 나선 경험이 있는 데다, 지난해 도루왕 타이틀까지 차지했다. 지금도 유사시에 대비해 2루, 3루에서 타구를 받으면 팀 내 최고 수준의 안정감을 자랑한다. 수비와 주루 스페셜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한데, 이제는 타격 재능까지 꽃피우고 있다.

다만 올 시즌에는 아직 도루 시도가 6회(4성공)로 적다. 성공률을 떠나 시도 자체를 줄였다. 심우준은 "당연히 뛰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지만 유독 득점권에 찬스가 많이 걸렸다. 앞에 주자가 있는 경우가 잦았다. 또 개인 기록보다 팀이 더 중요하다. 확실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면 털 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35도루로 타이틀을 따냈으니 도루 능력만큼은 이미 검증받은 마친 상태다. 무리한 욕심으로 자신을 어필하기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3·4면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부처님오신날 19일(수)자
신문 쉽니다. sportsdonga.com 뉴스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PGA투어 AT&T 바이런 넬슨 3타차 정상 '도전의 아이콘' 이경훈 79전80기 만에 첫 촉배

(PGA 첫 우승)

한·일투어 제패 후 PGA 2부 도전 5년 기다림 끝에 인간승리 드라마 1타차 뒤지다 최종일 완벽 뒤집기 2년간 시드·4대 메이저 출전권 획득 "만삭의 아내와 우승 함께 해 기뻐"

AT&T 바이런 넬슨 최종 톱 6 (파 72)		
순위	선수	스코어
우승	이경훈(한국)	25언더파 263타
준우승	샘 번스(미국)	22언더파 266타
	패턴 키자이어(미국)	
공동3위	대니얼 버거(미국)	21언더파 267타
	스콧 스톨링스(미국)	
	샬 슈워츠(남아공)	

* 강성훈 11언더파 공동 47위, 김시우 10언더파 공동 55위

역대 PGA 투어 한국인 우승자

이름	통산 승수	대회
최경주	8승	컴백 뉴올리언즈 클래식(2002년 5월), 템파베이 클래식(2002년 9월), 그린스보로 크라이슬러 클래식(2005년 10월), 크라이슬러 챔피언십(2006년 10월), 메모리얼 투너먼트(2007년 6월), AT&T 내셔널(2007년 7월), 소니오픈(2008년 1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2011년 5월)
김시우	3승	윈업 챔피언십(2016년 8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2017년 5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2021년 1월)
양용은	2승	혼다 클래식(2009년 3월), PGA 챔피언십(2009년 8월)
배상문	1승	HP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2013년 5월), 프라이스닷컴 오픈(2014년 10월)
노승열	1승	취리히 클래식(2014년 4월)
강성훈	1승	AT&T 바이런 넬슨(2019년 5월)
임성재	1승	혼다 클래식(2020년 3월)
이경훈	1승	AT&T 바이런 넬슨(2021년 5월)



인고의 세월이었다. 한국과 일본 무대를 정복했던 그는 더 큰 무대 도전에 나섰다. 2부 투어를 포함해 5년 만에 이르는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최고 무대에서도 정상에 섰다. 만삭의 아내와 함께 한 우승이라 의미는 더욱 컸다.

이경훈(30)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810만 달러·91억5000만 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7일(한국시간)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2)에서 열린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2·3라운드에서 이를 연속 노보기 플레이를 펼치며 선두 샘 번스(미국)에 1타 뒤진 2위로 4라운드를 맞았던 이경훈은 최종 합계 25언더파 263타로 번스(미국·22언더파)를 3타 차로 따돌리고 PGA 정규 투어 첫 우승을 달성했다. 상금 145만8000달러(16억4000만 원)를 손에 넣었고, 세계랭킹은 137위에서 59위로 경종 올랐다.

최경주(51), 양용은(49), 배상문(35), 노승열(30), 김시우(26), 강성훈(34), 임성재(22)에 이어 한국 국적 선수로는 통산 8번째로 PGA 투어 우승을 차지하면서 2년간 투어 시드와 다음주 열린

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을 비롯한 4대 메이저대회 출전권을 보너스로 획득했다.

● 약천후를 먹고 일어서다

함께 챔피언즈에서 플레이한 번스가 1번(파4) 홀에서 보기를 범하며 손쉽게 공동선두가 된 이경훈은 2번~3번(이상 파4)~4번(파3) 홀에서 3연속 버디 행진을 벌이며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79번 쓰러져 80번 일어났다". 이경훈이 17일(한국시간) 미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79전 80기만에 거머쥔 생애 첫 PGA 투어 우승이다. 매키니(미 텍사스주) | AP뉴시스



Returnup 리턴업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건강기능식품 18g(600mg)×30캡슐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 비타민(A·C·E·베타카로틴), 미네랄(아연·구리)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사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아연, 구리)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330-9988